**대회를 통해 성장한 나**

**담대함 : 변화의 원동력**

**결심, 실천 그리고 변화(대회 참여 결정)**

아침이 밝았다.고요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저것들이 내 현실 같다면 하고 싶은 건 끝도 없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꿈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꿈을 찾아서 떠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나, 적어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것이 하나 있다. '꿈'.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다. 꼭 이루려고 노력해 봐야겠다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루고 싶어 했던 꿈에 대해 실천하려고 계속해온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며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단순한 상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미래 인생 청사진을 짜게 되었다. 행복하고 멋있는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나를 다독였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무엇이 중요한가.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만들어내고 싶을 만한 것을 찾아 헤맨다. 나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꿈에 대한 열망이다. 고민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떨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꿈에서 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나의 미래와 인생 청사진을 짜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았었다. 그중 대부분이 겪었던 어떤 사건들은 내 눈앞에 큰 사건이 되고 말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기게 해준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였다. 뭔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 대회 공지를 발견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평소에도 많은 일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았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대회가 전국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글을 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아마 내 꿈은 꼭 이뤄질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정말 멋진 일이 될 것만 같았던 꿈을, 꿈에 그 어떤 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내가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자신감도 생겼기 시작하였다. 남들이 보면 멍청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의 길을 가다 보면, 또 한 번 새로운 곳에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지된 믿음은 계속되면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하나라도 놓지 못할 미로 같은 목표가 생기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곤 한다.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항상 아쉬운 것은 그런 노력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는 것이다. 흔히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 있다. 나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할 뿐이다. 결국 나는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나 스스로 놀라웠다. 괜히 위로가 될 것 같긴 한데 용기가 내 진짜 모습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가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뭐.. 나는 그냥 꿈이 많아서 그런 걸까 하고 수긍하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현실적인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날 불안하게 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하는 거잖아? 라는 마음먹고 꿈을 키우고 싶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단 여럿이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나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으니 같이 웃어 주기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야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더 많아진 느낌이었다. 그래, 나는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 해놓고 막상 보니 대회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다. 왠지는 알았다. 여러 번 바뀐 대회들이 있어도 난 어차피 안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좀 덜컥 대회로 선정이 되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욱더 마음을 열고 고민하고 실천할 준비를 해 보자! 그렇게 나에게 다가가 보였다. 팀원을 구해보자. 모두에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봐라 그리고 우리 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믿는 일이니 잘 부탁하지 마라 이 말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항상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믿음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나를 바꿔 놓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팀원이 지지해 줄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의지(팀원 모집)**

누구를 팀원으로 구하지? 아무래도 친했던 친구와 대회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느꼈던 것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난 어딘지 모르게 찜찜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말이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처참하고 불협화음 같은 일이 닥친 듯하다. 두렵고 초조해졌다. 정말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것 같다. 사실 나도 요즘은 이상한 아이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이 친구와의 인연이 오래되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나를 망설이게 한다. 그러는 사이 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커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좋은 일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은 같이 여행했던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유럽여행을 간 적이 별로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를 떠올리면 괜히 신이 난 것 같고 추억이 된다. 서로가 서로를 깎아 먹을 때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었던 기억들은 다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사이에 더 가깝게 되었다. 지금은 졸업할 때 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갈만 한 친구가 거의 없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빨리 만나면 편했다. 지금도 종종 만나는 걸로 약속은 했지만 사실 1년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번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계획하게 되었고 딱 그 정도였다. 아직도 자주 만나지 못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의 나와의 만남과 행복한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혹시 또 그런 경우라면 꼭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힘들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딘지 초라한 나를 발견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제까지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언젠간 내가 친구들과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니까 말이다. 그 친구는 나와는 다르게 불안감 없이 나와의 기억은 좋은 추억들로만 채워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곳의 풍경은 마치 환상과 같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나는 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햇빛과 햇살을 맞으며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열정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나에게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고, 기적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데, 그때는 어쩐지 나 자신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새로운 체험을 하고 그것에 대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한구석에서라도 계속 새롭게 느껴지니까 말이다. 시간이 흘러 현재는 물론 과거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것이 직관적으로 뇌리에 박힌 것은, 바로 이 열정적 에너지란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가 현재까지 유지해 온 에너지는 '자신감 넘치며, 어떠한 마음가짐도 다부지게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며, 이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길 갈망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것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현재에 있어서 불안전한 이유는 미래에 관한 불안과 염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미래의 확신을 위해서이고, 현재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달성 가능성은 미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이 아닐까? 시간에 의하면 알 수가 없다. 다만 시간이라는 단위로 인해 그날그날 달라지는 것, 또는 과거에서 나타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선택이 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자! 즉, 결정 되어있는 것들은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하기 힘들고, 미리 정해 놓은 법칙대로 행동할 뿐이기 마련인 셈이라고 해석한다면, 불안의 정도는 예측할 수만 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어쩔 줄 모르는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분명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감정들은 예측될 수없이 변한다고 믿어야 한다 믿는 것이라 믿어왔던 게 틀렸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고찰해보려 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좋은 일과 함께 나 자신에 대해 고찰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는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단점이 나를 망설이게 만든다. 너무나도 감정적이어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 괜히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더욱 못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일침을 가하는 것 같다. 바보 같은 행동이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지만 우리는 서로가 너무 무관심한 탓인지, 아니면 그게 제일 큰 문제인지 모르겠는 건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점이고, 또 그렇기에 더더욱 아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생각하는 방향이 저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 아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람은 각자 차이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그저, 그냥 순수하게 지나가는 말로만 들릴 수도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나의 마음이 아주 이상해졌다. 내 생각에 따르면 요즘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지낸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느낀데, 예전처럼 아직도 그것을 크게 걱정하진 않는 듯하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차분히 얘기해보면 잘 되겠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어른거릴 지경이었다. 수화기를 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할 필요 없어, 잘못해도 되잖아? 으악"수화기가 말이다. 그렇게 이 친구가 팀원으로 합류했다.

이제 한 명만 더 구하면 된다. 문제는 도저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포기할까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나로 변하자고 마음먹지 않았는가? 두렵지만 대회 측에 문의 해보기로 했다. 상대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열정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단지 그걸 인정할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을 하였다.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자면 몸이 한결 개운해졌던 것 같다. 힘들겠다고, 그냥 계속 걸을 수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대회 측에서 팀원을 구해주겠다는 답변을 주었다. 처음에 우리가 같이 간다고 해서 많이 어색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새 우리의 분위기는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것에 재미가 붙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공유한다. 같은 출발선에 서있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친밀감을 형성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역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수록 타인이라는 존재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괜히 나 자신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된 순간,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날 이후 난 더 성장할 동력을 얻었고, 나의 삶은 더욱 탄탄해졌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 앞으로 나아갈 발판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낼 준비를 할 것이다. 힘껏 달려갈 것이라는 믿음은 언젠가부터 인지 모르지만 말이다. 이제 팀원 결성은 끝이 났다.

**포용하는 용기(스터디 및 예선 시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모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껏 해왔던 그 수많은 공부와는 다른 나의 작은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경쟁심이 생기게 된 것 같다. 남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렵다면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는 무작정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검색한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글을 쓴다. 그것은 나에게 큰 자극을 주기도 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이 바뀌었다.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언가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자신감과 개방적인 마음이 아닐까 한다.

이윽고 예선 당일 날이 밝았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같은 교실로 모였다. 시답지 않은 농담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다른 때보다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친구'의 말이었다. "얘가 왜 이런 걸 해? "나는 의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줄 몰랐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그의 말에 크게 공감한 적이 없었다. 그가 내뱉은 한 줄의 말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가 않았다. 그날 하루 동안 나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곧 감정의 앙금까지 만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나도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며 밤잠이 오지 않았었다. 그러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전날밤 준비해 두었던 과자를 나눠 먹으며 친구의 다그치는 소리, "내가 뭘 잘못 했어. 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라고 말하는 아이들 사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대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다툼도 있었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고,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 날은 새로운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경쟁과 효율성의 개념이 아닌, 서로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어렴풋한 믿음을 품게 된 이후,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험인 경기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가 필요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타협과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야말로 모순되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방향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의 상황에 놓여 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맞설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 않다. 대화를 해야 하며, 서로의 삶과 가치관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용기를 내서 다시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을 했다. 결국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고, 그동안 했던 말은 실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단지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보내자.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고 양보하며, 만약 잘못했으면 그때는 내 얘기를 들어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무엇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난 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꿈꾸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들과 같거나 혹은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옳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는 결국 제시간 내에 과제를 해냈다.

팀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팀장으로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말의 깊이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마음속에 상처를 간직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렇기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내적인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가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리더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이 개입되는 토론의 장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자칫하면 그 의견이 독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거나 의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독선적이거나 비전문가스러운 결정론이 나오게 된다. 결국 나의 일방적 주장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될 때도 많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져 급기야엔 서로를 믿기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기를 낸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덕분에 우리는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나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의 포기나 회의는 없도록 하자.

본선 합격 문자가 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떨리는 가슴을 숨기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잠시 후,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다. "곧 도착하는 대로 알려줄 거예요."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합의된 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에 대해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행복하다. 서로의 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쁨은 평생 남을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고, 상대가 내렸던 것들을 이해할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역시나 항상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졌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본선 당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본선 날이 되었다. 왠지 모르게 나에겐 긴장감이 감돈 것 같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마지막 점검을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를 조명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의 시작이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있다는 것에 행복해졌다. 그 행복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믿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 물론 이런 나의 다짐은 곧잘 약이 된다. 처음엔 걱정이 되고 겁났지만, 조금씩 잘 돼 가고 있다. 이번에도 그랬고,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도 그렇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힘들었지만 후회가 없다. 본선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회는 모 대학의 웅장한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육각형의 각진 모양이 인상적이다. 뭔가 싶을 정도로 넓은 공원의 한가운데서 본 운동장은 마치 신세계 마냥 느껴졌다. 드디어 출발선에 섰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심호흡하며 뛰었다. 내가 걸어가는 내내 다리에는 긴장감이 역류가 흘렀고, 눈은 번쩍 뜨인 것 같은, 그야말로 '코 끝 기분'을 내며 달렸다. 나의 목표는 달성이라는 것을 나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소중한 목표였다. 다시 한번도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저 하늘이 내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짜릿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조금씩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한 나에게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무언가가 눈앞 위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감정,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어우러지며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내게 하고 있었던 첫 번째 생각이다. 두 번째는 세상을 누구의 관심사가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조우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바람에 흐드러지는 나뭇잎, 내 살갗을 스쳐 지나가는 기분 좋은 바람, 봄바람에 피어난 봄꽃들. 벚꽃이 지면을 가득 채운 모습이나, 눈이 비로 바뀌어 버린 날씨를 보며, 핑크빛 꽃을 보며 사진을 찍는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도 늘 항상 그것은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길을 걷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아니 더 많을지도 모른 채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한없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만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이 이야기도 하며,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다는 의견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도 분명 지금의 세계를 느끼고 있기에 이와 같이 생각해보고 공감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 생각이 든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사회자가 본선의 시작을 알렸다. 느낌이 좋았다. 처음 걱정하던 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팀은 의욕이 넘쳤다. 뭔가 싶었다. 왜냐면 팀이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대회에 나가긴 했지만 끝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성취감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한가지 기억에 남는 말은 '끝까지 가 보자'라는 말이었다. 넌지시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말이 아니었나? 정말 멋진 팀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만든 말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도 나는 어딜 봐서 어느 순간부터 내 앞에 보이는 모습이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쓰여버렸는지 나중에는 "너 이겼다! "이러기까지 했다. 물론 다들 각자 잘한 거라고 생각할 것이나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팀은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괜히 긴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보려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써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막상 진짜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연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문구나 창의적인 표현들을 많이 쓴 들, 그것들은 사실 모방과 실력이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문제인 듯싶은 게 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을 보여준 것이고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 점검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실수를 개떡처럼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일 테고, 세 번째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나머지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해진 시간만을 보내야 한다. 그런 시간에 맞추어져 있어도 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봐야만 하는 것. 그래,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완성할 수 있겠지.

우리 팀의 중간발표 순서가 다가왔다.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다.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나는 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커다란 함성이 울렸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까? 나만 이렇게 기뻐했겠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용기를 얻고 싶어졌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성취감에 설레고 행복했다. 여기서 조금 더 있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생각에 즐거웠고, 자신감도 생겼으며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해보았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봐서 언젠가 나에게 진정한 재능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팀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실력을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가겠다고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난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왜냐면 이번에는 우리의 실력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노력이 없었다면 나중에는 성공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길이 많이 막혀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역시나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봤었는데 그러는 것은 좋지 않았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아직 제대로 갈 시간이 없는 것이다 보니 후회가 됐던 것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자 한다. 비록 중간에 포기한 부분이 많았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벌써부터 짜릿함이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느낌은 강한 반면 두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의 준비를 하면 된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렇게 나의 우울은 시작되었다. 그 이후 나는 편협하고 무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순간 몸이 점점 더 약해져갔다. 아팠던 마음은 정말로 악몽 같았다. 그때의 감정은 잊힐 줄 모르고 커져가고 있었다.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나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또 이러한 감정들은 몇 번의 반복을 하며 나를 괴롭혔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나에게 말 걸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라고 내가 말한 친구는 내게 말을 건넸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고 했다. 잠시 후, 우리의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느꼈으며, 긴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다시 환기가 필요해', 이렇게 계속 불안이 고조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고, 나도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 답답하기도 하다,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울음을 터트렸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었던 거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해 애를 썼어야 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단순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하는 방법 밖에 없었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보았더니 허탈함만이 나왔으며 어느 정도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다'아니,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기분이 나쁜 쪽으로 치부되어 버렸으니 너무 이상하고, 찜찜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럴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무엇이 옳게 돌아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는 무조건 위로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슬픔을 삼켰지만, 현재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점들의 고리에 대해서는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싶어서 깊이 고민한다.

본격적으로 팀별 활동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활동 목표는 '비전'이라는 것이었다.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는 있자니 막막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나중에 훌륭한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그런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구상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지내왔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지금까지 나를 뒷받침해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나는 명확한 목표나 꿈에 대한 것은 없었다. 그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잡다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야지였다. 그리고 점점 더 '이래서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이렇게 난 후회가 많이 쌓였고 점차 나 자신을 믿지 않고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일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다. 정말 마지막이 되어서는 마음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감이 커짐을 느끼게 되었고 초조함과 긴장감까지 느꼈던 상황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팀원이 독창적인 해결책을 떠올렸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말로 솔직한 모습들까지 보였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생각에 대단하다. 또한 평소에 가졌던 혹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 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렵기도 했고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두려웠을 때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큰 고민이 있던 부분은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해야 된다는 법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느껴진 부분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무작정 행동으로 나아가기에는 힘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한다.

나는 팀원이 낸 해결책을 감행하기로 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한계를 직시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다. 비록 큰 성과가 없어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금씩의 개선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나눴다. 그리고 우리 팀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팀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았다. 한 명의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어도 커다란 도전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팀이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을까? 어떨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나의 기대감에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내가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처음엔 걱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사소한 것으로라도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상황이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는 것에 설렘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조금은 용기 내어 도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든든하다. 또래 애들과는 다르게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어떻게든 부딪혀가며 헤쳐 나갈 준비를 한다. 마침내 대회 심사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서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1등 팀은...! 하하. 상금은 왕관을 잡고 손을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고 무엇보다 떨렸다. 그리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다시 한번 말하였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정말로 잘해냈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꼈으며, 어찌나 자신감도 넘치게 느껴지던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어느새 난생처음 보는 상대와 마주칠 만큼 친해지고 좋아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던 이유였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 그때는 무조건 성공하리라 다짐도 하게 된다. 물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면 꼭 행복에 가득 찬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팀이 아닌 혼자였다면 절대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도전은 나의 열등감을 조금은 뚫어주었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마구 뒤섞인 치열한 순간들.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 사실 난 내가 한순간에 잘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대단하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냥 지나쳤을 때 나오는 후회가 있고 이런 감정들이 내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해 있었던 거 같다. 그런 감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솔직히 말해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렸다가는 결국 또 망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돌아온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었다. 나만 바뀌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조금씩 더 고민하다 보니, 앞에 답이 없는 문제를 마주한 느낌이었다.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계속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 각자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출발점은 나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상금을 가지고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잠시 그만 둘까 하다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나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을 얘기를 하며 시간을 갖고자 노력해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다. "다음 주까지 꼭 참석해야겠어! "이렇게 다짐을 했더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광수생각을 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뜨겁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었다. 어젯밤엔 친구가 함께 나와 대화를 하자며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통해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며칠 동안 집에 있지도 않는 사이 통화를 하게 된 우리였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맞이해주었고, 저녁에는 같이 먹은 소파에서 라면을 먹고, 지친 배를 잡고 자러 나가서 잠에 든 상태로 침대로 들어갔다, 깨자마자 샤워를 하면서 하루의 끝을 장식하였다.

**대회를 넘어, 세계로(비전)**

나를 변화시키고자 결심한 이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 나는 할 수 있다. 뭘 해보겠다고 다짐한 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한 것은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내는 데 크게 일조했다. 힘들 때는 위로의 말을 했고, 성취감을 느낄 때면 강한 믿음과 용기를 내어 달랬던 것 같다. 이제는 나 자신을 믿고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할 날도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한다. 앞으로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고, 값진 꿈을 이뤄가고 싶어서, 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다. 성공은 내면에서 온다고 했던가.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의 말처럼 나도 조금씩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자신한다. 늘 '실패는 연습'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도, 절대 멈추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도해볼수록 점점 그 시도는 결실을 맺기 마련이었다. 이번엔 조금 쉽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회가 오기까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자신이 있어 자랑스러웠으며, 설령 그것이 다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주저 말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생긴 탓이 크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정말 유익하고 뜻깊었던 순간이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을 했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해준 선배님들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겸손하되, 나 자신의 가능성을 잊지 말자.

이제는 세계로 나아갈 때다. 나를 믿고, 동료를 믿고 같이 도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괜찮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했으니까. 그렇기에 내 길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용기를 낸다고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에게 다가온 것들을 보며 용기가 생긴 것 같다. 새로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든 생각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중이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이 기회를 세계라는 큰 무대에서 맞이하고 싶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를 위해 나는 교환 학생을 떠날 것이다. 그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괜찮은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 또한 너의 꿈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겠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한다. "꿈은 내 인생의 일부이다. "나는 이 문장을 보며 나의 미래를 생각했다. 미래의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고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이며 방향을 잡는 일인 거야. ‘담대한 도전’. 그 단어가 전해주는 울림이 나의 마음을 고양시킨다. 그 어떤 파도와 폭풍이 몰려온다 해도 폭풍의 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추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